

북한의 부패실상과 개방정책의 한계

The limitation of an open door policy and Entity of corruption
in North Korea

이서행(Lee, Seo Haeng)*

ABSTRACT

The intention and purpose of this research dealing with the phenomena of corruption and the limitation of an open-door policy for reform in North Korea is to explore an appropriate developmental model in the open-door policy of North Korea in the future. Although North Korea does not pursue an open-door policy, there has been a high level of corruption. A developmental model for North Korea will be the adoption of the developmental model of China. This paper is a preliminary study for illumin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door policy of socialism and corruption with analyzing previous research and consulting refugee's statement due to the limitation of information and literature regarding North Korea.

Key words : open door policy, phenomena of corruption, high level of corruption

* 한국학중앙연구원

I. 서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¹⁾ 이후 전통적으로 자본주의사회를 비판할 때 부패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구조적 모순에서 유발된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89년 12월 몰타에서 있었던 미소정상회담에서의 탈냉전선언 이후 발생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Collapse)²⁾ 과 대 실패(the grand failure)³⁾ 그리고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⁴⁾의 원인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의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 때문이었겠지만, 당관료들의 부패로 인한 엄청난 파괴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부패가 자본주의 국가의 전유물인 것처럼 주장하여 온 종래의 사회주의자들의 시각은 점차 그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부패문제는 당 중심으로 정치행정의 미분화 현상이 뚜렷하고, 실제로 일당독재 독재의 국가와 폐쇄적 당 관료주의 국가이며, 권위주의적 동원정치 행정의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당 중심의 권력구조와 문화속에서 형성된 부패의 개념적 유형으로는 첫째,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와 행정권한을 벗어나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일탈행위이며, 둘째, 정치행정의 제도 및 체제의 미비나 취약성에서 배태된 산물로써의 제도적인 부패이다. 사실상 부패는 개인의 행태나 구조적인 취약성보다는 정치제도의 긴장과 사회문화환경에서 유발되고 심화된다. 실제 정책과 제도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소수의 지배계층인 엘리트의 의식구조와 가치체계의 배분으로 이루어지며, 속성상 취약한 통제제도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 탐욕적 이득을 취득하는 일탈행위와 맥락을 공유한다.⁵⁾ 특히 북한은 김정일 권력승계 과정에서부터 김일성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여과없이 '우리식 사회주의'로 계승했기 때문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채택한 개방개혁정책시기를 놓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부패구조는 지하문화로 은폐되어 훨씬 심각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 사망전후 어려운 식량난 극복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구사함으로써 반대

1) Karl Marx & Frederick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48)

2) Leslie Homes. *The End of Communist Power :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ation crisis*(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3)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90)

4) F.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New York: Free Press, 1992).

5) 김영중, "북한의 정치부패와 인권", 북한연구(1995) 통권 20호, pp.44-60 참조

급부로 식량지원을 받아냈는데 이런 와중에서 일탈행위 등의 부정부패문제는 더욱 사회전반에 골이 깊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사회주의국가에서의 통제된 개인의 일탈과 제도차원의 부패문제가 그다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을지라도, 개방과 개혁의 분위기를 틈탄 부패문제는 체제위기의식과 함께 심각한 경우에 처하게 되는데, 가깝게는 중국과 베트남의 개방과 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난 반부패정책의 강화와 처벌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의 부패실상과 개방개혁정책의 한계를 다루려고 하는 의도는 북한이 본격적인 개방정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일상생활에 있어 부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이 장차 본격적인 개방개혁정책을 펼 때 중국식 경제발전 특구 모델과 전사회적 개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식 발전모델을 선별적으로 적용시켰으면 하는 의도에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북한사회주의 국가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된 정보의 폐쇄로 인하여 자료수집과 검증가능성의 제한점 등이 있지만 선행연구와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개방과 부패와의 관계성 규명을 위한 예비발표임을 밝혀둔다.

II. 김일성주의 우상화와 부패문화

한 국가에 있어 지도자의 도덕적 인품과 지도이념은 부정부패척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949년 본토를 뺏기고 파천하여 대만을 세운 장개석은 개국 초부터 철저한 반 부패정책을 펴 오늘날까지 그의 리더십이 회자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민족독립과 통일전쟁의 영웅으로 숭상받고 있는 청빈한 호치민(胡志明)의 지도자상은 오늘날까지 베트남국민의 일상생활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3류 국가인 싱가포르를 일류국가로 이끈 리관유(李光耀)의 철저한 도덕적 리더십은 부패 척결지도자로 손꼽히고 있다. 김일성⁶⁾ 부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북한은 현재 에너지와 식량, 핵문제 등으로 인해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20세기 한 민족의 수난기에 김일성은 일본에 약탈당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항일투쟁에 참가를 했었고,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나라가 양분되어 주의·주장이 다른 두개의 정부가 섰을 때, 한국 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그 후 그는 조국의 북쪽에서 사회주

6) 김일성은 1994년 7월 83세를 일기로 사망했지만 일제하의 평양에서 출생해 33세가 될 때까지 항일 운동을 하다가 해방된 후 귀국하여 근 반세기 동안 북한을 다스렸다. 사후 김일성의 시신은 그가 집무하던 주석관에 안치되어 있는데 북한의 언론들은 김일성이 인민들과 영원히 함께 있어 보호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과 유엔에서 식량지원을 하지 않으면 탈북사태로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는 극에 달해 있다.

의 정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적들을 숙청하고, 북한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소련과 중국에서 벗어나 자주 노선을 천명하고 제 3세계의 일원으로 나섰다.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북한은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를 퇴치하고 주체사상을 만들어 완전히 독립된 사회주의 국가로 자처했다. 김일성은 생전에 자신이 북한 주민의 수령일 뿐만 아니라 남한을 포함한 7천만 전 한반도 주민의 수령이요 태양임을 자처했었으나 북한전역에 자신의 신격화 우상물과 가난만을 남겼다. 한국 국민들은 한때 독재자와 군부 통치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만 김일성을 그들의 수령이나 지도자로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 김일성이 평소 그렇게 강조했던 자립 경제는 고사하고,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세계 각국의 식량 원조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김일성이 사망한(1994년 7월 8일) 다음해 북한에 들이닥친 대홍수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었으며 수백만의 아사자와 탈북자들을 속출했다.

김일성 시대에 북한의 맹방을 이루었던 사회주의 진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소련의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어 러시아로 변했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이상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했다. 아시아에서도 민족 해방 전쟁에 승리한 베트남에 의해 통일되었던 베트남이 개방을 표방하고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유일한 맹방 중국도 이미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중미관계개선 및 자본주의 선진국들을 상대로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 김일성이 없는 북한은 헐벗고 배고픈 처지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위험한 핵개발과 테러지원국으로 지목되어 이라크 붕괴이후안보상의 위기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일성가계의 신격화는⁷⁾ 비이성적 수준을 넘어 김정일의 유혼 통치⁸⁾로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김일성 신격화의 실증적 증거의 하나로

7) 신화내용은 유치원과 인민학교 교재내용이 되어 정규교육을 통해 배우고 있다. “김일성은 백두산 정기를 타고나 천지조화를 다 안다. 축지법을 써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며, 하룻밤에 수 천리를 왕래한다.” “모래알로 성을 만들며, 술방울로 총탄을 만들고 가랑잎으로 대하를 건너간다. 김일성이 한번 노력하면 사나운 원수도 가을 풀같이 쓰러지며 미소로 바라보면 마른나무에도 잎이 돋고 꽃이 핀다”. “김일성이 1975년 5월 루마니아, 유고 등으로 여행할 때, 그가 지날 때마다 사시사철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히말라야 산줄기와 알프스 영봉들도 머리를 숙이고, 지중해와 대서양도 숨을 죽여 겨울 같은 길을 열어 주었으며, 가시는 길을 따라 꽃물결이 일고 대륙을 뒤흔드는 환호성이 울렸다. 수령을 끝없이 존경하고 배우는 것은 세계인이 추세로서 수령을 모셨기에 20세기는 영광이 빛나고 있다. 우상화자료는 이서행, 『분단시대의 북한상황』, 대왕사, 1983; 강광식 편, 『북한이 실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북한정권』, 남북문제연구소, 1997, 참조

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 력전』, 평양: 조선노동출판사, 1999, p.395.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북한 전역에 세워져 있는 동상의 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예컨대, 현재는 8만여 개의 설도 있지만 1991년 당시 북한 전역에는 크고 작은 김일성의 동상과 흉상이 30,060여 개로 추산되었으며,⁹⁾ 특히 김일성의 개인 숭배와 신격화는 그의 후계자인 김정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어 그 실상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절대적 권위주의 지배하에서 유발된 권력의 남용과 오용은 필연적으로 만연된 부패현상의 근원이며¹⁰⁾, 부패만연으로 인한 망국의 장래를 예측케 한다.

Ⅲ. 북한의 부패실상과 개방정책

1. 관료부패의 유형과 실상

북한에 있어 부패는 절대권력과 정부관료제의 구조적 병폐에서 유발된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제도적 취약에서 부패의 기회가 제공되고, 이것을 통제 할 만한 통제여지의 부족과 정치행정엘리트의 공직관의 부족, 그리고 사회문화 환경적인 부패토양과 유인의 변수가 핵심적인 부패 변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경우는 1인 지배의 절대적 권위주의적 권력 구조하에서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화가 구조화되어 있는 정치행정체제이다. 즉 가족 중심의 족벌 체제적 권력구조와 김일성 주체사상에서¹¹⁾ 파생된 비합리적 관료제도의 구조적 부산물이 부패를 배태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족벌관료구조는 필연적으로 권력쟁탈과 비합리적 연고주의, 파벌주의, 가족주의, 사인주의, 그

9) 김동규, 『북한학총론』, 교육과학사, 1999, p.400.

10) 김영중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관료제연구”, 북한연구(1991) 통권6호: 7-23

11) 주체사상에 대한 전통적 입장은 대내적 정치사정에 의해 최초로 1955년에 주체를 사용했으며 1967년 주변정세변화에 따라 공식 표명되었고, 1982년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논문에서 그 기간이 1930년으로 소급 적용되어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만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의 요체인 것처럼 선전되어 왔다. 이러한 권력장악과 통치차원에서 형성된 주체사상은 구조적·제도적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즉 주체사상은 정치적 참여과정이 봉쇄되고 극소수의 족벌정치엘리트들의 권력유지용과 인간을 집단주의적 명령과 규범에 강제적으로 복종케 하는 독재통치 논리의 귀결이어서 시스템이 이완되면 부정부패는 걸잡을 수 없이 증가하게 된다. 이서행, 『북한주체사상의 본질과 실체』, 한국자유총연맹, 1989. 참조

리고 권위주의적 관료행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부패는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의 부산물이며, 일반 국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 그리고 폐쇄사회와 명령경제에서 유발된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권위주의적 관료주의는 국가의 정치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차단되어 있고, 국민의 '알 권리'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권을 비합리적 방법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보되어 있다.

사실상 김일성은 1970년대 초부터 김정일에게 세습에 의한 권력승계를 시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여동생 김정희는 당 경공업위원장, 그 남편인 장성택은 당 청년사업부장, 김정일의 외 5촌 동생인 강현주는 당 책임비서,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는 부주석, 4촌 동생인 김창주가 부주석,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가 여맹위원장, 그 소생 김평일은 핀란드대사였으며, 고종사촌 양현섭은 최고 인민회의 의장을 차지하는 등 엄청난 비율의 족벌관료체제의 인맥을 차지하고 있다¹²⁾.

이러한 족벌체제적 권력구조는 특수한 인간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국가의 정치행정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실제로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많다. 따라서 공직을 이용한 특수한 이익모형의 부패구조에 휩쓸리게 된다. 특히 김일성 사후 승계과정과 향후 국가정책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족벌간의 권력갈등의 가능성은 권력부패의 서식처로서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경제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율을 함으로써 경제규모가 80년대 말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정부패는 더욱 기승을 부려 체제붕괴위기로조짐까지 점쳐지고 있다.

북한경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경제의 모순이 누적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상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원천적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구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급속하게 축소됨에 따라 결정적인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북한식 자급자족 경제는 엄밀히 말해서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었으며, 대외경제협력 관계도 북한경제의 존속을 위해 이미 필요한 요소로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라는 외부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북한경제가 희생될 수 있음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폐쇄적 독재형 관료제는 비생산과 무능, 그리고 부패의 부산물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북한 탈북자 여만철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부패구조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하며 이러한 것은 근원적으로 북한 경제실

12) 김동규, 앞의책, pp.401-404참조

패와 관료제의 병폐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한다¹³⁾. 북한경제실패에 대해서는 구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국가들의 공통적인 경험에서 나타났듯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기본적 요인¹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북한의 개방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관료제 병폐에 대한 외형적인 유형과 사례만으로 한정한다. 그것도 여러 가지 제한조건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므로 선행연구인 김성철의 「북한 관료부패」¹⁵⁾의 성과가운데 관련된 분야를 원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용하여 반부패정책과 개방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조직차원의 부패¹⁶⁾

구조적인 관료부패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북한경제가 지니고 있는 모순에서 비롯되며 생산목표의 달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관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패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공장, 기업소의 관리자들에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거의 가지지 못한 반면 책임만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소의 생존을 위한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부패가 생활화된다.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첫째, 자재조달 목적으로 발생하는 뇌물공여형¹⁷⁾, 둘째, 생활필수품을 위한 기업소간 물물교환형¹⁸⁾, 셋째, 기업소간 수주경쟁형¹⁹⁾ 등이 있다.

13) 귀순자 여만철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김일성 별장은 약 80여 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 별장은 365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경비하는 병력은 700-800명에 이른다. 이러한 병력은 김일성 주석이 일년에 한번 잠깐 왔다 가는데 불과한 별장을 경비하는 병력으로서 이것은 엄청난 국가예산 낭비이며 이것은 바로 권력의 신격화와 폐쇄적 관료주의에서 오는 부패라는 것이다. 김일성에 대한 이러한 관행은 김정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14) 이념면에서는 집산주의와 평등주의, 정치면에서는 권력이 공산당에게 집중되어 있고, 생산면에서는 경제의 계획적 생산수단의 공유제, 자원배분의 집권적 경제결정, 분배면에서 노동의 공헌도에 따른 분배 등이다. 북한에서는 이같은 기본요인의 철저한 일원적 지배이외에도 개인위상화와 족벌세습체제가 사회화되어 폐쇄사회가 철통같이 유지되지만 그만큼 부정부패로 인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15) 김성철, 「북한관료부패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16) 위의글, pp.36-40.참조

17) 김정민(전 북한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산하 대양무역 사장)의 증언(1994.2.17)
“자재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의 경제상황에서 뇌물공여와 같은 관료들의 일탈행위는 흔히 발생한다. 예컨대 제철소에서 강철이나 강재를 공급받는 기업소들 사이에는 공급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제철소의 자재공급이 차질을 빚는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기업소는 생산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런 기업소의 지배인과 당비서는 제철소의 간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비공식적으로 우선순위를 번복시켜 필량의 자재를 공급받는다.”

18) 송문홍(사회주의요, 팍 썩은 뇌물 천국이야요: 혁명사적지 지도원 高靑松이 증언하는 ‘북한의 부패구조’ 『신동아』 1994.2,p.447), 재인용. “북한은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2) 개인차원의 부패²⁰⁾

이 유형은 사회적 상승이 극히 제한되고 관료주의로 인한 권위주의 뿌리가 깊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부패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차원의 부패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시킨다는 측면에서의 소극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적 도덕 규범에서 일탈된 관료들의 이중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가차원의 기강이 문란해져 국가나 최고통치자의 권위가 비공식적 측면에서 심각히 손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차원의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후원의 대가로서의 성 상납: 북한에서는 이념적으로 계급적 차별이 없는 평등 사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사회와는 정반대현상이다. 일단 당원이 되면 사회적으로 신분보장이 확실하며 그에 따른 특혜와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원이 되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삼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당원이나 출세를 위해서는 성까지도 뇌물로 바치는 경우가 있다.²¹⁾

생필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기업소의 운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해왔다. 따라서 북한의 각 기업, 기업소는 본연의 업무외에 소의 '후방공급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유정제공장은 디젤유 5톤과 모빌유 2톤을 수산사업소에 신고 와서 명태 5톤을 받아간다. 원유정제공장의 책임자들은 명태를 직위에 따라 분배하여 식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한편, 수산사업소는 명태와 교환한 유류로 겨울 한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된다."

19) 김영성(전 북한 건축기사)의 증언(1994.3.2) "이는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기업소간 경쟁을 자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태로서, 권력기관에 속한 기업소의 책임자일수록 새로운 시장을 찾기보다는 가로채기에 의해 자신의 시장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20) 김성철, 앞의글, pp.49-55.참조

21) "입당과 관련하여 당 간부가 수뢰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 뇌물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 사용되는 뇌물로는 주로 6-7천원 정도로 암거래되는 흑백 TV 한 대 정도이다. 인사청탁을 받고 수뢰한 당원은 그에 뒤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TV의 국정가격인 7백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곧 국정가격으로 구매했다는 구실을 만들어 놓기 위한 것이다." 한편 "관료들이 성분 좋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당원자격을 부여받는데 후원하거나 성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성관계의 대가로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당원이 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 간부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좋은 직장배치를 받기 위해서 또는 외화를 얻기 위해서도 행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김정민의 증언참조(1994.8.20). 위의글, pp.51-54.

② 생산목표미달과 책임전가: 모든 경제계획과 수요공급이 중앙집중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생산라인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보다는 책임회피 일쑤다.²²⁾

③ 일상생활과 관련한 행정부패: 저개발사회나 개발도상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패는 생활행정에서부터 비롯된다. 북한에서도 일반행정이나 권력기관에 속한 관리들이 응당 해주어야 할 일을 뇌물을 받고 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치 60년대 관행화 되었던 우리사회의 급행료와 같은 성격이다.²³⁾

3) 관료부패의 변화양상

북한이 당면한 문제는 관료부패의 양상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당시에 취한 대내외 정책, 즉 1984년 「8·3소비품증산운동」과 「합영법」 채택으로 소비재의 불균등한 분배 및 이에 따른 제2경제, 특히 암시장의 형성과 외화의 유입이 이루어져 생산과 유통부문 관료들의 공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북한의 개방개혁의 몸짓이 움트기 시작했던 80년대 중반에 북한에는 새로운 관료부패유형이 유행되기 시작했다.

22) 담당관리들의 생산목표 미달성에 대한 책임전가의 한 일화를 보면 “새 학기의 시작을 앞두고 학용품, 그 중에서도 만년필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무원 총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만경대 영예군인 만년필공장의 지배인에게 묻자, 그 지배인은 “강선 제강소에서의 강제공급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답한다. 총리가 다시 제강소의 지배인을 호출하여 추궁하자 그는 “철광산에서 정광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는 까닭에 우선 공급대상인 제2경제위원회(군수품 생산지도 부서)에 강재를 원활히 공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년필공장의 일반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이에 대해 책임은 광산 지배인에게 돌아가지만, 그 역시 “임산사업소에서의 갱목과 타이어 공장에서의 타이어의 공급 부족으로 채광작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답한다. 이런 식으로 각 생산 담당자들은 다른 생산 부분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고영환, 『평양25시』, 고려원, 1992, pp.43-47

23) “그 대표적인 예가 통행증 발급과 관련한 비리이다. 가족의 위급한 상황 등 통행증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이를 신청하는 경우, 리당 비서, 사회안전부 리담당 보안원 등이 승인해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당연한 사유를 가지고도 그 절차상의 복잡성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뇌물을 공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외에도 뇌물수수는 근무처 배정과정에서도 흔히 발생한다.” 김정민의 증언(1994.2.17). 위의글, p.49.

① 주택사용권의 암거래: 북한에서는 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주택권과 관련한 관료들의 부패 개입은 이미 존재해 왔지만 최근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일부관료들은 근무지를 이동하면서 주택을 공식적으로는 국가에 반납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용권을 불법으로 암거래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한 중앙의 간부가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는 경우, 그는 이사하기 1개월 전쯤 시베리아 벌목장 또는 리비아 등 해외근무현장에서 귀국한 사람에게 사용권을 밀매하고 친척이라는 명목으로 동거를 하게 된다. 1개월 후 그가 실제로 전근갈 때 주택을 국가에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사용권은 사실상 동거인에게 넘어간다. 이러한 관료부패는 시, 군, 구역의 주택배정 담당자와의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²⁴⁾

② 골동품 및 귀금속 암거래: 북한사회가 조금씩 문을 열고 동북아 국가들과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어려운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문화재까지 밀거래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대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 정도가 간혹 거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들어 골동품이 주요한 암거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거래의 영역이 단순히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화벌이를 위한 전문적인 암거래로 발전하고 있다. 1988년부터는 고분을 도굴하거나 박물관에 난입하여 고화, 불상, 도자기, 금, 은비녀 등을 도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관리자의 공조나 정보제공없이 불가능하며 검문소를 통해 자행되는 것을 보면 조직적인 밀매단이 있음을 알수 있다. 골동품 외에도 금과 은이 무역상사들을 통해 간혹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경우는 최고통치자의 통치자금과도 관련이 있다.²⁵⁾

③ 외화횡령: 1990년 이후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경제악화와 절박한 식량난 그리고 외화사정이 어려운 북한은 외교관 및 경제일꾼들로 하여금 본 업무 외에 밀수행위를 통한 외화벌이에 나서도록 독려하다가 국제법위반사례가 외국인론에 자주 오르내린바 있다. 이 과정에서 외화 횡령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외국으로 망명하거나 월남한 경우도 있다. 외화벌이 국영무역회사에 소속된 ‘거간꾼’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받아온 상품을 가지고 북한 전역을 순회하면서, 약초, 송이버섯, 명란, 창란 등과 물물교환하여 이것들을 해외에 수출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환비율을 조작하여 외화를 사적으로 축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거간꾼들은 1톤을 구하는데 있어서 실제로는 1천5백 달러 정도의 물품을 가지면 충분하다. 여기서 거간꾼들은 6천 5백 달러라는 거액

24) 고청송(전 북한 자강도 강계 혁명사적지 보존사업소 지도원)의 증언(1994.3.25). 위의글, p.60.

25) 「중앙일보」, 1994.7.28. 김정민의 증언(1994.8.20). 위의글, p61-62.

의 차액 중에서 일부만을 자신의 무역회사에 바치고 나머지를 횡령하게 된다.²⁶⁾ 최근에는 감추거나 횡령한 달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달러사용증지를 내리고 대신 EU환을 사용토록 한 조치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을 예측할수 있다.

④ 불법 개인기업의 운영: 북한에서의 최근 관료부패의 또 하나의 양상은 소위 ‘장부에 없는 공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료들이 공장지배인, 당간부, 사회안전부 요원들과 격탁하여 통행증을 발급받아 하수인으로 하여금 전국을 돌면서 필요한 자재와 원료를 조달해 불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장은 대부분 대규모는 아니며, 하나의 부업의 형태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부패는 공공의무에 대한 관료와 주민들의 의식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다.²⁷⁾

2. 부정부패와 뇌물의 실상

북한의 만연된 부패실태는²⁸⁾ 사회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파생된 결과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사회의 부패실태는 다음과 같이 뇌물구조화하고 있다. 즉 뇌물 없이는 북한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사회에서는 전 부문에 걸쳐 조선노동당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중앙당을 비롯하여 각급 당 위원회를 둘러싼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각급 노동당 간부들은 직장배치나 주택배정·입당 관련 외화·시계·옷감·식료품·담배·술등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특히 여성에게는 입당이나 좋은 직장 배치 등을 미끼로 정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무엇이든지 고여야(바쳐야) 일이 된다”며 한탄하고 있다. 주요 뇌물수수 관행은 다음<표2>와 같다.

26) 송문홍, 앞의글, pp.445-446

27) 김성철, 앞의글, p.63.

28)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북한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에 빠져 나온 것을 의미한다. “딸의 일가족 등 17명을 탈출시킨 재미교포 최영도씨는 자신이 미국에서 딸에게 송금한 돈이 1/3만 전달되거나 심지어는 한푼도 전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중간과정 어디에선가 증발된 것이다. 이들이 사회안전부원과 함께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도 김씨가 보낸 달러가 위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가운데는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국경을 넘은 경우도 있다. 실제로 귀순한 외환딜러 최세웅씨는 216만달러를 김정일에게 바치고 딸을 영국으로 빼내올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돈이든 술이든 뇌물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해성씨(전 북한 중앙방송 기자)에 의하면 안전원 한데 잘못된 일이 있어 한번 단속됐다고 해도 술 한 두 병만 찢러주기만 하면 무사히 풀려난다는 것이다.

<표 2>주요 뇌물과 수수액

구 분	뇌 물 수 수 액
매 관 매 직	정무원 국장은 미화 10만달러, 부부장(차관급)은 20만달러
평 양 이 주	미화 4천달러(지방주민의 평양이주 경우)
중 국 방 문	미화 2천달러(언제나 방문가능)
중 국 이 주	미화 5만달러(신분을 화교로 위장, 이주)
입 당	미화 2백달러(로동당 입당)
무 죄 처 리	절도범 북한화 700원, 살인범 일화 2만엔
신 분 증 대 여	미화 1백달러 (1개월간 국가안전보위부원 신분증 대여)

북한사회에서 집단주의로부터 개인주의로 가치지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의 하나는 공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챙기는 뇌물수수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뇌물은 사회전체에 만연하는 일탈행위로 되었다. 고위관리에서부터 일반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뇌물수수는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귀순자 강철환의 증언²⁹⁾에 의하면 1970년대 후반에는 뇌물이란 구경도 하기 힘들었는데 1980년대 후반에는 뇌물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가족은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간혀 있다가 친척의 뇌물로 풀려났으며, 처음에는 농장에 배치받았다가 뇌물을 제공한 후 다시 우마차 사업소로 배치받았다고 한다.³⁰⁾

<사례1> 각종 선발과 뇌물

출신성분이 대학 입학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 최근에는 뇌물을 주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한다. 군의 한 단위부대에 정식으로 내려오는 명수는 9명인데 지명되어 내려오는 사람(뇌물을 통하여 이미 입학이 결정된 경우)은 22명에 달한다고 한다. 대학입시 첼이면 직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들고 청탁을 오기 때문에 자기집에서 자지 못하고 피해야 하는 정도라고 한다.

러시아 별목공 선발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뇌물이 수수된다고 한다. 별목공 선발은 각 공장 기업소에서 김부자에게 충실하며 사업과 당조직 생활, 사로청 조직생활

29)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그리운 어머니」(서울: 향실, 1993), p. 32

30) 위의 책, p.46

에서 모범적이며 맡겨진 생산과제 수행에 모범을 보인 당원들과 서로청원들을 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구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 가운데 면접시험을 치를 때는 담당공무원이 뇌물을 은근히 요구하는 것이 예사이며 뇌물을 제공해야 합격하기가 쉽다고 한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조선족 사회과학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1988년 북한의 친척을 방문할 때 평양에서 함흥행 기차를 탔는데, 역무원들이 친척에게 줄 선물보따리를 보고는 뇌물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선물보따리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어주고 나서야 비로소 기차에 짐을 실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은 최근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뇌물은 인간의 도리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회전반에 걸쳐 뇌물수수행위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주민들 시아에서는 “「맨입반대 투쟁월간」은 1년내내 계속된다,” “모두가 자기방면에서 쪼아먹으며 산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맨입반대 투쟁월간의 경우, 경제난이 장기화되어 일상생활의 대화 주제들이 식량난 관련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면서 현재 북한내 최대의 유행어로 되어있다고 한다.

<사례2> 북한사회에 만연된 ‘뺨’의 정체³¹⁾

북한이야말로 북한노동당이 말하는 ‘인민의 지상낙원’이 아니라 권부기득권층은 천국이요, 뺨과 뇌물없는 백성들에게는 다시없는 지옥인 셈이다. ‘뺨’(Back Ground)이란 말이 생겨난 기원을 언제부터 잡는 지는 확실치 않다. 아마도 야사와 같은 역사일지도 모른다. 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온 것만은 틀림없다. 또한 뺨은 냄새도 없으며 윤곽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위력은 사회제도와 문화도덕적 수준,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크게 유동적으로 나타난다.

①북한 노동당 간부정책의 허와 실

북한 간부인사는 길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간부사업 지침에 따라 ‘표징’을 전제로 한다. 간부사업에서 간부들의 선발원칙은 우선 “김부자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높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닌 능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대상들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요구가 선발 대상들중 계급적 바탕을 기준으로 중요시하며 이것은 철저히 연좌제의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적용된다. 따라서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간부후보가 자기의 직계나 외, 처가에 과거 사회, 정치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후보로서의 가치는 훨씬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경험과 능력이 조금 뒤지더라도 현재 동향이 좋고 직계 및 친인척의 과거 정치,

31) 북한연구소, 『북한』 5월호, 1995, pp.58-67. 참조(김정민/전 조선노동당 간부의 증언, 1988년 5월 귀순)

사회적 결함이 없으면, 당연히 간부후보로 추천에 당선될 수 있다. 또한 그 연줄로 뺨이 작용하면 얼마든지 간부후보로 지목은 물론 현직 간부등용이 가능하다.

북한의 권력구조가 잘 말해주는 바와 같이 모든 권력 기관들은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속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다. 절대권력이 당에 집중되고, 당을 한사람의 강권으로 다스려 지는 과정은 뺨이 뺨을 낳고 뺨위에 뺨이 필요한 경우도 다반사로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이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한내에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며 당중앙위원회에서도 조직지도부와 선동선전부가 그 핵심 부서이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동선전부외의 부서들도 북한의 최고 권력부서인 것만은 틀림 없으나 이들 전문부서들은 당조직문제와 사상문제에 한해서는 당조직부와 선동선전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그것도 당내 기구들로서 철저한 복종형태로 위계질서가 서있다.

얼핏 보면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조직지도부와 선동선전부간에 벌어지는 기타 전문부서들과의 관계는 당중앙위원회에 소속되어 직접 근무하면서 느끼기 전에는 이들간의 상하관계를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당내 사업 원칙이 ‘김부자의 고시와 말씀’대로 당사업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상으로는 위계질서보다 당적 원칙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중앙위원회내 권력형인맥은 언제나 당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하고 선전선동부의 철저한 협력으로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

② 북한사회에서의 ‘뺨’의 역할³²⁾

한마디로 북한사회에 만연된 ‘뺨’은 크게 ‘친인척 뺨’과 동향, 동창,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의리형 뺨’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권을 전제로 하는 ‘뇌물형 뺨’이 있다. 물론 ‘뇌물형 뺨’은 그리 신용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오래 지탱되지 못하는데 그중 이성관계로 엮힌 ‘뇌물형 뺨’은 조금 장기적이고 신용도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뺨이라면 설명이 따로 필요치 않겠지만 워낙 북한사회에 만연된 뺨의 현실이 다종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북한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뺨이라는 범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바 위에서 설명된 고위층으로부터 하층 기초간부들에 이르기까지 자기 직계 및 친인척들 중 고위 간부층들의 힘을 입지 않는 자들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를 소위 ‘성분’, ‘가정환경’, ‘계급적 토대’ 등으로 구분해 절대화하는 풍조가 바로 친인척 뺨을 엮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창, 동향, 절실관계로 인연이 되어 뽄뽄 뽄쳐 그 중 누가 고위직이나

32) 위의책, pp.64-69.

권력핵심에 있게 되면 그가 ‘빡’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노동당 규약과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 지도체제를 규정한 10대원칙에서도 극력 억제시키고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고도의 음성화만 초래했을 뿐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 형태는 직장, 직위를 이용해 사법, 행정,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거래를 목적으로 ‘빡’이 작용되는 바 이런 현상은 7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주민경제생활이 극도로 영락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북한사회에 만연된 ‘빡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우선 첫째, 당권력을 등에 업고 등용을 전제로 하는 ‘권력승진형(승진, 편리한 직장선택 및 알선, 입당전제, 거주인전 등) 빡’이 있고, 둘째, 행정권력에 의지해 범죄와 신분상의 결합을 보완하는 ‘제2권력 무마형(형량감소나 무죄석방, 신분상의 내용수정, 무능한 자의 높은 직급 현상유지, 여행증 발급 사유가 아님에도 발급, 주택우선배정 등) 빡’이 있으며, 셋째, 사회적 직위와 직무를 등에 대고 자기편의를 추구하는 ‘경제형 및 편의형(절품 및 희귀상품 구입, 각종사회 봉사의 질량적 우선혜택 등등) 빡’등이 그것이다.

현재 북한내 중견 이하 간부들을 유형별로 분석하더라도 충분히 증명되는데 보통 군당책임비서나 군안전, 보위, 검찰, 인민위내 대부분 간부들은 다기 직계가 중앙당이나 중앙기관 간부가 없는 대상이 1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말단 리나 동에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규모가 작은 3-4급기업체 당비서나 지배인 등 초급간부들 까지도 자기 친인척의 빡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어떤 빡을 가졌는가에 비중이 실린다.

따라서 당권력을 배경으로 둔 ‘빡’은 직장배치나 직무승진 등만 관계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유형별로 구분했을 따름이며, 당이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도 당, 특히 당중앙위원회 지도원이라도 가문에 한 사람 있으면 그 집안은 자기 가문의 가장 권위있는 빡이 되는 셈이다.

<사례3>뇌물만 있으면 안되는게 없다.

다음은 1993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국경경계를 탈출하여 중국 화룡, 연길, 길림, 심양, 북경, 천진항을 거쳐 그리던 자유대한민국에 귀순하였다. 귀순 전 북한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토대로 북한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갖가지 부정비리에 대한 실상은 다음과 같다.³³⁾

①돈만 있으면 인정받는 사회

33) 위의책, pp.84-89. 참조(증언: 윤웅/전 북한대학생, 1993.10월 귀순)

북한은 겉으로는 사회주의 이념 즉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로 북한사회를 미화,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이 돈이나 뇌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례는 김정일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는 1993년 귀순하기 전까지 평양에서 대학공부를 하면서 평양시내의 골동품 거간꾼들과 연계를 가지고 골동품 장사를 한 일이 있다. 이때 알게 된 여러 사람들로부터 김정일이 내린 지시(비밀지시)를 들은 적이 있었다. “나라에 20만 달러 이상을 회사한 사람은 국가에서 합법적인 골동품 거래 허가를 내어 주고 평양시 거주권, 당중앙위우회 소속 39호실 재정 경리부의 직원으로 승용차도 주고 사람들도 많이 배치시켜서 전문장사꾼으로 등용시키라”는 지시였다. 말하자면 어떤 사기를 치든지에 관계없이 김정일에게 필요한 외화(\$, ¥)만 공급한다면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밀지시는 평양시내의 한다하는 골동품 거래자들에게 퍼져 있어 이제는 돈만 많이 벌어서 국가에 회사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골동품을 가지고 다닌다. 사회주의의 근본이념까지 다 무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내리는 김정일의 사고방식,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내 것, 내 재산만을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해가며 돈벌이를 하여 빈부의 차이가 심해져 가고 있다.

내가 아는 한 귀국동포(북송교포)는 자기의 아버지가 ‘일본에서 보내주는 돈 중에서 50퍼센트를 국가에 회사하여 한갓 고등중학교 교사에서 하루아침에 6군단 외화벌이회사 사장, 인민군 대좌(대령)로 승진, 발탁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돈만 있으면 인민군대의 장성자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뇌물로 얼룩진 대학생활

북한에서 대학에 입학하기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미국돈 100달러 정도만 있으면 평양시내의 일류대학은 합격하기가 어렵지 않다.

북한 일반 사무원의 한달 봉급이 150원 정도이니까 이와 비교하면 엄청난 돈이다. 이 중 2천5백원씩 4분으로 나누어 대학을 추천해주는 담당자 1명, 대학 당위원회 책임비서, 간부과(인사과)과장 1명, 담당인사지도원 1명, 담당 학부장 1명에게 뇌물을 주면 그 대학 합격은 따 놓은 것이다. 실례로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는 최아무개 친구는 현금 1000달러(1만원)를 들여 자기의 여동생을 대학에 입학시켰다.

대학생들이 대학 시절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큰 희망의 하나이다. 그러나 외국유학을 가는 것도 커다란 뇌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는 1986년(대학 2학년때), 폴란드 유학 시험에 합격, 외국어 강습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때 내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합계 15명이 합격되었는데 유학가는 시험은 둘째이고 우선 중요한 것이 유학 대상자를 선발하는 대학 간부과 지도원, 당위원회 지도원들에게 커다란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내가 다니던 학급에서는 유학시험 합격자가 5명이었는데 그 중 3명은 외국어 강습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그때 나는 대학 당위원회 책임지도원에게 녹음기 1대(북한돈으로 2,700원)를 선물하였으나 외삼촌과 이모가 남한에 있다는 이유로 외국어 강습 도중 축출되기도 하였다.

나머지 2명이 폴란드에 유학을 갔는데 그 중 1명은 어머니가 큰 국영식당의 책임자로서 대학 간부와 지도원에게 선물을 수없이 하였고, 다른 한명은 그 친구의 누나가 대학교 직원이었는데 간부와 지도원(유부남)이 그 누나에게 “네 동생을 유학보내 주겠다”는 조건으로 희롱하였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결국은 그 친구의 누나는 대학에서 사퇴하였고 간부와 지도원은 ‘혁명화’하여 탄광에서 1년 6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다.

결국 돈만 있으면 유학도, 그리고 졸업 후에 직장배치도 잘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이 이제는 북한의 대학생들의 의식속에 하나의 정리처럼 자리잡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돈에 대한 집념으로부터 시작되어 대학교수, 대학생, 대학원생들도 자기의 기본 업무인 연구, 강의 등을 멀리하고 직접 되거리 장사 등 장사판에 뛰어드는 것이 현 북한의 실상이다. 물론 나도 돈이 우선이라는 관념 하에 대학시절부터 돈을 다루어 온 것 부터가 비극이었다.

③간부층의 부정과 비리

‘간부’라면 우선 외제승용차(일제, 독일제 등)를 임시 소유(국가소유)하고 운전기사를 데리고 있으며 그밖에 서기를 데리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 국민을 짐승처럼 생각하며 그들의 말 한마디면 일반국민의 직위해제 등의 제재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간부들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그의 친척이나 가족 혹은 당사자의 부인, 아들이 나서서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한국에 귀순한 강명도씨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그의 경력을 보면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아니지만 다만 김정일의 멀고도 먼 외가친척, 강산성 총리의 재혼한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이 피땀흘려 벌여놓은 수십만불의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장사할 수 있는 특전을 인정하여 준다는 현실이다. 간부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친척들은 그들의 힘을 빌려서 이른바 큰이권에 끼어들기도 한다. 내가 아는 친구는 자기의 외삼촌이 국가보위부 7국장인데 그의 지원 하에 주요 외국차들을 밀수입하여 들여온 것들 중에 몇대씩 빼내어 북한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1대당(중고차 일제, 독제, 한국제) 15만원(1천5백달러)에 팔아 큰 이윤을 보기도 했다. 그 친구는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장사로 큰 돈을 모았고 청진시내에서는 돈있는 총각 혹은 유력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④부정부패 속에 썩어가는 북한군대³⁴⁾

한반도가 일제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난 이후 김일성의 현대판 봉건군주국가가 북한땅에 탄생하면서 오랫동안 조직화되고 공고화되어 왔다. 특히 김일성의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론이 북한정치의 최우선으로 결정됨으로써 북한의 군사정치화는 더욱 노골적이고 호전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

북한의 모든 사회구성부분이 군사조직체제로 조직화되어 하나의 ‘병영국가’로 전환되었고 국가의 지도체제 자체가 군인 중심으로 전시 군사정치체제로 형성되었다. 김정일체제에 들어와 형식적으로나마 현상유지 되어온 국가주석제마저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이며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인 김정일이 국가원수로 둔갑한 것은 노골적 군사정치를 자행함으로써 병영국가로서의 자태를 다시 한번 과시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최고사령관 명령’에 의해 군복무 연한이 남자는 30세까지, 여성은 27세까지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리하여 1백 30여만에 달하는 현역군인들을 비롯하여 전체 북한주민들이 군사조직체에 얽매어져 병영국가체제 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평상시에도 입버릇처럼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해 유지된다”면서 “오직 군대만이 믿을 수 있는 당의 친위대”라고 하며, 군대에 대한 사회·정치적 지위를 부상시키는데 솔선해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은 정권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국가의 경제가 엉망이 되고 말세적 사회풍토가 만연되며, 백성들이 굶어죽고 있는데도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군부대 시찰만 다니면서 군대에 아부·아첨을 일삼고 있다. 수십년 간에 걸친 국방예산의 집행은 북한 인민경제의 군사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시켰다. 그 결과 군수경제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내각 외에 별도로 ‘제2경제위원회’가 설립되고 자강도·양강도·평북도·평남도를 위주로 거대한 지하 군수공업 단지들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민간의 중소기업소·공장들에 이르기까지 군수직장이 ‘일용직장’ 혹은 ‘1호직장’이라는 위장명칭을 달고 생산물의 군수품 전환을 실현하고 있다.

1996년부터는 김정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군대가 협동농장의 모든 생산물을 무장경비하도록 하는 추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결국 북한의 경제는 군수경제에 짓눌려 헤어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인민군대는 ‘도둑대’ 유명한 말이 유행한다.³⁵⁾ 그 명언인즉 “군단장

34) 위의책, p.56(증언: 김영립 / 전 주석궁 3등 서기관).

35) 1996년 10월 평양 고사포병 사령부 제41여단 소속의 부소대장이 평양시 역포구역 세우물리에서 강냉이를 훔치다가 민간에게 맞아 죽은 비참한 사건까지 초래되었으며, 김정일 조차도 1980년대 중반 강원도지구를 시찰하면서 5군단 31사단이 규율이 문란하다고 격렬하게 노하여 야단법석을 떨었다. 김일성은 자신이 직접 ‘10대준수 사항’, ‘10대중대관리준칙’, ‘규정수첩’ 등 규율강화를 강조했다.

은 군말없이 떼먹고, 사단장은 사정없이 떼먹고, 연대장은 연속 삼키고, 대대장은 대담하게 떼먹으며, 중대장은 중간에서 가로채고, 소대장은 술곰술곰 줌도독질한다”는 말이 그것이다. 또 다른 명언은 “군사지휘관은 군말없이 부정축재하고, 정주지휘관은 정정당당하게 하며, 보위지도원은 보란 듯이 한다”는 문구이다.³⁶⁾

3. 직장 절취

2차집단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적 자유회의 한 유형이 직장재산을 절취하는 독직행위이다. 북한에서 식량과 생활품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난 사회일탈 현상의 하나는 절취의 성행이다. 고위직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생산품을 한 두 개씩 훔쳐들고 퇴근한다는 것이다. 직장 절취행위도 연령, 성별, 학력 고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일탈행위라고 한다. 오히려 고위직원일수록 회수와 양이 더 많다고 한다. 귀순자글의 증언에 의하면 “안전부 사람들은 안전하게 뿔아먹고, 보위부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뿔아먹고, 당간부는 당당하게 뿔아먹는다”는 은어도 유행한다고 한다.

한 귀순자에 의하면³⁷⁾ 북한 주민의 99%(도시농촌 가릴 것 없고 각계각층의 사람)가 도적질을 해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일년에 공장이 4-5개월 정도 돌아가는데 그 때 노동자들의 최대의 관심은 공장가동 기간중 공장생산물을 훔쳐서 퇴근하는 일이라고 한다. 공장이 돌아갈 때 훔쳐서 집에 쌓아놓고 다른 생필품과 바꾸어 사용한다고 한다. 북한의 안전부가 관리하는 교도소나 교화소의 경우 80-90%가 절도 등의 경제사범이라고 한다. 북한 주민들의 절취행위는 소설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한다. 북한의 장편소설 「환회」³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북한 소설에서 북한 간부들의 개인주의와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멘트 공장의 한 간부가 시멘트와 동판 등 공장자재를 몰래 빼내어 금지된 개인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간부들이 경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배인 동무 저 집들을 좀 보십시오, 훌륭하지요. 저 울타리 높이는 여기 노동자들이 18톤급 이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18톤의 시멘트가 들어간

36) 위의책, p.63.

37) 귀순자 박수현의 증언 (1994.11.1 인터뷰).

38) 김봉철, 『환회』, pp.134-35

집이라는 겁니다. 간부들이 경쟁식으로 개인주택을 지었지요. 울타리를 높이고 정원에 감나무를 심고 포도넝쿨을 올리고 공장창고에서 동관을 빼서 아랫방 구멍탄 아궁에 소형 보일러를 설치해서 칸칸이 온수가 돌지요. 시멘트가 많은 공장이 돼서 그러는 가요? 그래도 지배인 동무는 그들을 두둔하십니까? 이제는 새내에서 이 언덕을 가리켜 ‘간부촌’이라고 합니다....”

귀순자들의 증언과 북한 소설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북한에서 뇌물과 절취행위가 매우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차 집단에서의 사적 자율화는 경제영역에서 제2경제의 성행과 더불어 북한경제의 침체에 그 원인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4. 관료부패의 사회적 영향과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

관료부패가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경직성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 경제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일탈행위이므로 역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관료부패는 제2경제, 특히 그것의 전형이랄 수 있는 암시장의 확산에 의해 경제구조가 이원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에서 암시장은 원래 농민들이 텃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매매하도록 허가된 농민시장을 무대로 형성되었지만, 일부 관료들이 수완 좋은 하수인을 시켜 과잉 생산하거나 불법으로 생산한 소비재 공산품을 농민시장에 유출시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농민시장의 원래 기능을 왜곡시켜왔다. 아직도 소비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암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은 대부분 국정가격의 10배를 훨씬 능가하게 되어 그들에게 많은 이윤을 남겨주게 되었다. 결국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암시장은 국가경제가 미치지 못하는 분산화 현상을 낳음으로써 국가의 고민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관료부패는 일반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선택적 개혁·개방에 따른 관료부패의 심화와 암시장의 확산, 그리고 매개 수단으로서의 외화의 유통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서 관료 및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나는 관료 및 주민들의 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암시장이 확산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의 주요한 가치는 돈보다는 사회적 상승, 구체적으로는 당원이 되는 것이었다. 물론 사회적 상승은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지만, 암시장이 확대되면서 돈이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며, 특히 외화는 절대적인 가치와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관료들의 부패개입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중반 이전 관료일탈의 주목적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관료들은 이원적인 경제구조, 즉 제2결제에 익숙하게 되고 외부세계에 접하게 되면서, ‘부의 축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북한관료제의 모순은³⁹⁾ 다른 공산국가와 공통적인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나 판이한 양상을 노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관료주의의 모순중 첫째로 그 관료주의가 권력의 화석화, 즉 권력계층의 경직성과 통치기능의 노쇠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요령주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의 관료주의는 경제의 정체화를 가져왔다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경제의 관료화를 촉진시켰고, 하향식 명령경제체제는 창의성을 상실한 채 비능율만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더욱이 자력경쟁적인 이른바 주체경제는 대외협력관계의 장애요소로 등장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외채의 애로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일이다.

셋째로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일인체제의 관료화는 폐쇄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으며, 김정일교시의 관철이나 무조건성·절대성은 관료주의적 인간을 만들고 창의력과 혁신성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관료제에 보다 더 의존하고, 의존하면서도 통제하고 억제하는 불합리한 부담 때문에 더 많은 병폐와 체제상의 모순이 있다. 더군다나 당관료제와 행정관료제, 행정관료제내에서도 상급관료와 하급관료, 일반관료와 경제관료·경영관료·기술자·전문가 사이에서 대립과 책임전가를 나타내기 쉬운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사회주의가 유일당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데 실패하면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당관료주의가 사회주의를 타파한 사례가 1989년 이후 구소련과 동구권이다.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도 달리 북한에서는 개인독별관료화가 최고 정치 엘리트들의 정책과 노선을 이행하고 사회를 통제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료부패는 현 북한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우선 관료부패를 통해서 관료와 주민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이완되어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39) 북한의 관료제에는 자체적인 모순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체적 또는 체제의 성격상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그 모순과 병폐는 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체제자체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한 완전히 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한 관료제는 억제당한 채 병폐를 계속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료제는 전문적 능력과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면 체제변경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증대하면 그러한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통제의 가중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되게 할 것이다. 공산국가의 관료제의 변동은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그것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쇄신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라야 하겠다.

있다. 또한 부패의 대부분이 불법적인 사적 행위로 나타나는 만큼 사회주의의 본질인 집단주의를 저해하는 작용을 하며, 이것은 곧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이 잠식해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엘리트도 이러한 문제를 간파하고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91년 10월 중앙인민위원회가 공포한 ‘각 기관, 기업소, 군, 가정에서 비사회주의를 뿌리 뽑을데 대하여’라는 정령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정령에 의해 각 직장 및 지역별로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기관, 기업소 모범자로 구성된 ‘비사회주의 타파 그루빠’가 부패에 개입한 관료들을 적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 엘리트의 반부패노력이 성공적이라는 증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1993년 하반기에 북한은 2년에 걸친 ‘비사회주의 타파 그루빠’ 활동을 마감하는 총화를 가졌으나, 처벌대상자에 간부층은 거의 없고 일반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그루빠의 활동이 무위에 그쳤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반부패 캠페인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조치가 곧 체제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IV. 결론: 부패 척결을 위한 과제

연구목적에서도 언급했듯이 개방개혁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는 베트남의 반부패 개혁에 호지맹 지도자상이 큰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북한사회에 적용하고자 한 의도는 첫째, 북한이 어리석게도 전쟁방식을 택하여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의 종말처럼 되거나 아니면 부패한 족벌정치 때문에 인민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루마니아의 지도자 차우체스크를 답습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여 개방개혁정책의 길로 나가 핵 문제와 경제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이다. 셋째, 북한으로 하여금 최악의 핵 시나리오를 선택하기보다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교류협력으로 체제붕괴를 예방하면서 민족공영과 민족통합의 길을 구축하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1975년 공산화 이후 쿠바와 북한과는 달리 8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친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한 세계화 시장경제의 변화에 적극 편승하여, 도이머이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정책을 도입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비교적 조화롭게 달성하고 있다. 북한이 베트남식의 반부패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선해 나갈 과제를 요약제시 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북한은 민족공조체제하의 개혁개방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발전을 통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합한다’는 도이머이는 경제성장이 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 소득 불균형, 그리고 부패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도 초래하였고, 특히 이 중에서도 관료부패는 밀수와 함께 ‘역으로’ 도이머이를 저해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도 인정하듯이 부패통제는 오늘날 베트남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북한도 구소련과 중국의 개혁개방의 영향으로 1984년부터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조치를 취했으나, 80년대 말 동구권의 공산당이 붕괴까지 이르자 북한은 내부적인 사회주의체제강화로 급선회한 이후 가장고립 되면서 강성병영사회로 전락되어 국제적인 지목을 받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구조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체제붕괴위기에 처하자 북한은 벼랑끝 전술로 핵카드를 선택하여 가장 폐쇄적이면서도 위협적이어서 한반도의 기류가 불투명 하다. 북한은 나름대로 성공을 가져오고 있는 중국식 특구 개방이나 베트남의 부분적인 경제개혁모델을 교훈삼아, 남북협력공조체제로 전면적이며 종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해야 현실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은 청렴애민 지도자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은 개혁개방에 앞서 중국의 개혁과 베트남의 국부의 상징인 등소평과 호치민 같은 지도자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호치민(胡志明)은⁴⁰⁾ 비록 그의 노선이 공산당노선이었지만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 그리고 인민을 위해 성공적으로 투쟁한 존경받는 베트남 국부이며 민족정신의 지도자이다. 그는 통일된 조국의 감격을 보지 못한 채 1969년 9월 2일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혼은 인민들의 가슴속에 길이 살아 있다.

첫째는 독립희생자를 위한 보훈정책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한 것과 농민구휼 행정이다.

둘째는 그의 시신을 화장하여 그 재를 셋으로 나누어 북 중 남부의 사람을 위하여 거름이되게 구렁에 뿌려주길 바란다라고 한 살신성인과 평등분배사상의 유혼이다.

40) 폴, 버나드 B., 역음, 김대건 역, 『호치민의 베트남 혁명론』, 거름, 1987, 참조.

“구릉에 동상이나 비석 같은 것을 세우지 말고 그 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넓고 견고하며 서늘한 건물을 세우고 식목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라는 구절에서는 호치민은 북베트남 인민의 가슴에 묻히고 그가 원하는 바대로 통일베트남을 이룩하였다.

북한의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사망했지만 호치민과는 대조적이다. 사후 김일성의 시신은 그가 집무하던 주석관에 안치되어 있는데 북한의 언론들은 김일성이 인민들과 영원히 함께 있어 보호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북한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은 현재 식량난과 핵문제로 인해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김일성 부자 신격화는 비이성적 수준을 넘어 유헌 통치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우상화작업은 김일성부자 생일의 태양절, 민족대명절로서 국경일로 지정되고,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실의 경쟁적 건설, 백두산을 위시한 민족명산에 각종 사적비, 현지도기념비, 혁명사적 표식비, 명산의 바위마다에 새겨진 우상화 흔적인 붉은 암각서, 김부자의 대형모자이크벽화, 가정이나 관공서마다 김부자의 초상화비치 등 전대미문의 우상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호치민은 하나의 동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1991년 북한 전역에는 크고 작은 김일성의 동상과 흉상이 35,000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8만개가 넘는다 한다. 구소련이 붕괴될 때 동구권에서는 레닌과 스탈린의 동상이 붕괴되고 이라크가 몰락할 때 제일먼저 이라크국민들에 의해 후세인의 동상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인민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김일성의 개인 숭배와 신격화가 김정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절대적 권위주의 지배하에서 유발된 권력의 남용과 오용은 필연적으로 만연된 부패현상의 근원이며, 부패만연으로 인한 망국의 장래를 예측케 한다.

3. 북한의 반부패의지와 개방정책

북한에 있어 부패는 폐쇄사회와 명령경제 즉 절대권력과 정부관료제의 구조적 병폐에서 유발된 필연적 결과이며 일인절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부산물로서 행정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 때문이다. 특히 일인 족벌체제적 권력구조는 특수한 인간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국가의 정치행정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실제로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많으며 따라서 공직을 이용한 특수한 이익모형의 부패구조에 휩쓸리게 된다. 김일성 사후 승계과정과 향후 국가정책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족벌간의 권력갈등은 권력부패의 서식처로서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경제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경제규모가 80년대 말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생존권확보차원에서 부정부패는 더욱 기승을 부려 체제 붕괴조짐까지 점쳐지고 있다.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부패는 제2경제, 특히 그것의 전형이랄 수 있는 암시장의 확산에 의해 경제구조가 이원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에서 암시장은 원래 농민들이 텃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매매하도록 허가된 농민시장을 무대로 형성되었지만, 일부 관료들이 수완 좋은 하수인을 시켜 과잉 생산하거나 불법으로 생산한 소비재 공산품을 농민시장에 유출시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농민시장의 원래 기능을 왜곡시켜왔다. 아직도 소비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암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은 대부분 국정가격의 10배를 훨씬 능가하게 되어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게 되었다.

북한의 관료부패를 큰 유형별로 보면 첫째유형은, 기본적으로 북한경제가 지니고 있는 모순에서 비롯되는 조직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자재조달 목적의 뇌물공여, 복지를 위한 기업소간 물물교환, 기업소간 수주경쟁 등), 두 번째유형은, 사회적 상승이 극히 제한되고 경제가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후원의 대가로서의 성관계, 생산목표와 관련한 책임회피, 주민생활과 관련한 수뢰, 인사 관련 수뢰 등), 세 번째유형은, 2차집단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적 자유회의 한 유형이 직장재산을 절취하는 독직행위 등이다.(안전부 사람들은 안전하게 뽑아먹고, 보위부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뽑아먹고, 당간부는 당당하게 뽑아먹는다는 은어가 유행할 정도로 관행화 되고 있음)

북한의 만연된 부패실태는 사회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파생된 결과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사회의 부패실태는 만연된 뺑의 배경과 뇌물구조화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주민들은 무엇이든지 고여야(바쳐야) 일이 된다며 한탄하고 있다.> 북한이야말로 북한노동당이 말하는 ‘인민의 지상낙원’이 아니라 권부기득권층은 천국이요, 뺑과 뇌물없는 백성들에게는 다시없는 지옥인 셈이다. ‘

특히 북한관료제의 모순은 다른 공산국가와 공통적인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나 판이한 양상을 노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북한 관료주의의 모순중 첫째로, 그 관료주의가 권력의 화석화, 즉 권력계층의 경직성과 통치기능의 노쇠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요령주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의 관료주의는 경제의 정체화를 가져왔다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경제의 관료화를 촉진시켰고, 하향식 명령경제체제는 창의성을 상실한 채 비능율만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더욱이 자력경쟁적인 이른바 주체경제는 대외협력관계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로,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일인체제의 관료화는 폐쇄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으며, 김정일교시의 관철이나 무조건성·절대성은 관료주의적 인간을 만들고 창

의력과 혁신성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유일당 관료주의부패를 타파하는 데 실패하면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당관료주의가 사회주의를 타파한 사례가 1989년 이후 구소련과 동구권이다.

북한의 엘리트도 이러한 문제를 간파하고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였지만 절대권력과 구조화된 관료제하에서는 역부족이었다. 1991년 10월 중앙인민위원회가 공포한 ‘각 기관, 기업소, 군, 가정에서 비사회주의를 뿌리 뽑을 데 대하여’라는 정령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정령에 의해 각 직장 및 지역별로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기관, 기업소 모범자로 구성된 ‘비사회주의 타파 그루빠’가 부패에 개입한 관료들을 적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 엘리트의 반부패노력이 성공적이라는 증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1993년 하반기에 북한은 2년에 걸친 ‘비사회주의 타파 그루빠’ 활동을 마감하는 총화를 가졌으나, 처벌대상자에 간부층은 거의 없고 일반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그루빠의 활동이 무위에 그쳤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반부패 캠페인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조치가 곧 체제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광식 편, 『북한이 실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고영환, 『평양25시』, 고려원, 1992.
-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그리운 어머니』, 향실, 1993.
- 김동규, 『북한학총론』, 교육과학사, 1999.
- 김국신 외,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II권』, 한울아카데미, 1994.
- 김성철, 「북한관료부패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베트남대의경제개방연구: 북한에 주는 함의」, 통일연구원연구총서, 2000-09.
- 김영중, “북한의 정치부패와 인권”, 북한연구 통권 20호, 1995.
- _____,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관료제연구”, 북한연구 통권6호, 1991.
- 이운범, 「베트남의 정치·경제체제변화-도이머이정책과 공산당역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서행, 『분단시대의 북한상황』, 대왕사, 1983.

- _____, 『북한주체사상의 본질과 실체』, 한국자유총연맹, 1989.
- _____, 『새로운 북한학-분단시대 통일문화를 위하여』, 백산서당, 2002.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 략전』, 평양: 조선노동출판사, 1999.
- 남북문제연구소, 『북한정권』, 1997.
- 북한연구소, 『북한』 5월호, 1995.
- 『신동아』, 1994. 2.
- 「중앙일보」, 1994.7.28.
- 폴, 버나드 B., 역음, 김대건 역, 『호치민의 베트남 혁명론』, 거름, 1987.
- Karl Marx & Frederick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New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48.
- Leslie Homes. The End of Communist Power :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ization crisis(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90.
- F.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New York: Free Press), 1992.

저자약력 : 저자는 동국대와 단국대학에서 공직윤리를 연구하였으며 미국 트리니티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기획처장과 부원장을 역임하였다. 국민윤리학회장, 평화학회회장을 역임하셨다. 관심분야는 북한학, 공직윤리, 한국사상, 평화학 등이다.